



ONE-BODY ONE-SPIRIT MAGAZINE

2010 Autumn Vol.07

www.obos.or.kr



SPECIAL STORY 01


<아이티 지진 그 이후> “우리는 아이티를 잊지 않았습니다”
본부장 김용태 신부, KBS1라디오 <집중인터뷰> 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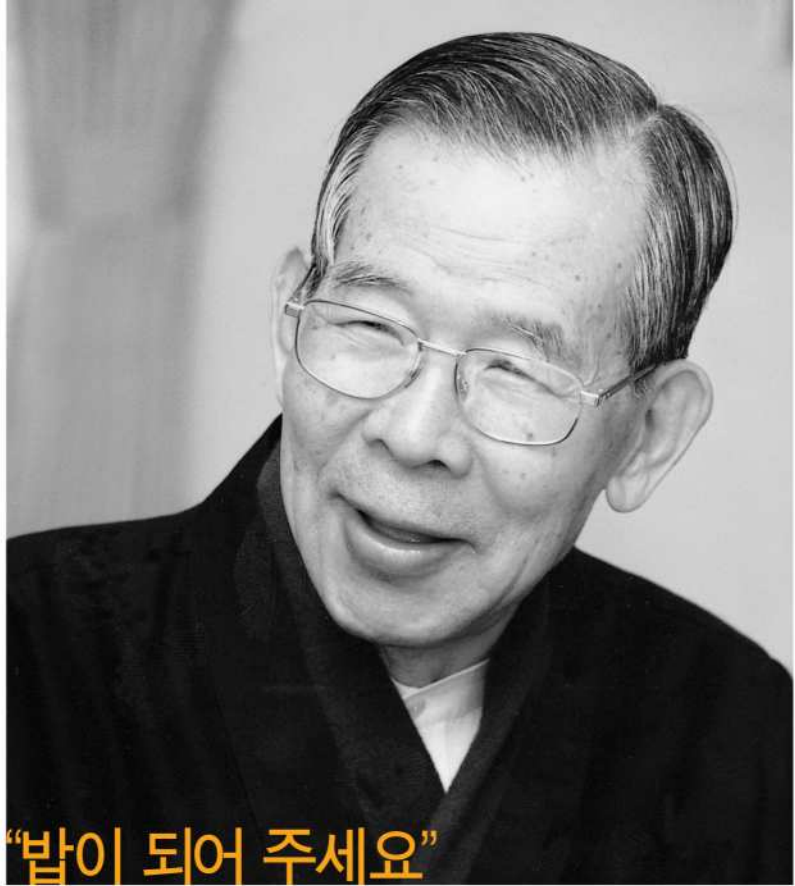
SPECIAL STORY 02

가톨릭교회의 생명운동과 자살예방 활동

현장속으로

MBC 일밤 <단비> 특집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몽골편'

 **한마음한몸운동본부** One-Body One-Spirit



한때 크리스마스 카드에 ‘밥이 됩시다’, ‘제가 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문구를 즐겨 써서 부쳤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영혼과 육신이 허기진 이들을 위해 ‘밥’이 될 만큼 자기 자신을 내놓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어수룩한 사람을 얹잡아보고 “저 사람은 내 밥이야!”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한없이 낮추고 비워 우리 모두에게 ‘밥’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죽음으로 당신의 모든 것을 내놓으셨습니다.



현대인들은 오늘도 “나는 결코 너의 밥이 될 수 없다”며 치열한 경쟁을 벌입니다. 그뿐 아니라 타인을 ‘내 밥’으로 삼기 위해 혈안이 돼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인간다운 사회가 되려면 타인에게 밥이 되어주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웃의 고통과 슬픔을 조금이라도 나눠서 지려는 마음도 밥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나눌 것이 없다면 함께 울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이기주의와 약육강식 논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 말씀 모음집 <하늘나라에서 온 편지> 중에서



표지이야기 우리가 진흙의 나라 아이티를 잊어서 안 되는 이유는 귀여운 이 소녀의 눈에서 희망의 빛까지 일게 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재해 앞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아이티 사람들을 위해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서는 아이티 장기재건사업에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과 큰 힘을 쏟고 있습니다.



www.obos.or.kr

2010 autumn Vol.07

02 여는 글

“밥이 되어 주세요” 故 김수환 추기경 말씀 중에서

04 Special Story 01

KBS1라디오 <집중인터뷰> “우리는 아이티를 잊지 않았습니다”

07 월드 On Air

“아이티의 희망은 진행 중입니다”

09 현장속으로

MBC 일밤 <단비> 특집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몽골편’

13 Special Story 02

가톨릭교회의 생명운동과 자살예방 활동

16 공감, 나누는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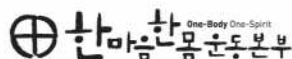
나눔의 전화 27주년 맞아 자살예방상담전화로 거듭나

나눔의 전화 상담수기

18 생명을 살리는 씨앗

천주교·불교·의료인단체 ‘한국 장기기증네트워크’ 출범

20 OBOS NEWS



한마음한몸 발행일 2010년 10월 25일 통권 제 7호 **발행인** 김용태

발행처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서울시 중구 명동길 62 (구. 명동2가 1) 가톨릭회관 413호

편집디자인 굿모닝컴 글·사진 기획홍보팀 **출력·인쇄** 프로아트

주소변경 및 문의 후원관리팀 | 02.774.3488 | obos@catholic.or.kr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서 발행하는 계간지 “한마음한몸”은 후원자들에게 무료로 배포됩니다. 한마음한몸의 내용은 인터넷 (<http://www.obos.or.kr>)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소식지의 저작권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있습니다.

Copyright©ONE BODY ONE SPIRIT. all rights reserved

〈아이티 지진 그 이후〉

“우리는 아이티를 잊지 않았습니다”



아이티 대지진 9개월... 난민생활 여전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본부장 김용태 신부, 제 2차 아이티 현장조사단 파견에 동행
본부 아이티 중장기재건사업 지원 본격 가동

대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아이티인들... 현재 그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폐허로 변해버린 아이티는 초기 국제사회의 집중적인 관심으로 원조약속을 받았지만 제대로 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본부장 김용태 신부가 KBS 1라디오 <박태남의 집중인터뷰>에 출연해 현재 아이티의 모습과 재건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KBS 1라디오 집중인터뷰”는 박태남 아나운서실장이 진행하는 뉴스속 화제의 인물, 사회명사들과 함께 하는 인터뷰 전문 프로그램(30분 방송)으로 금번 방송에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본부장 김용태 신부가 단독으로 출연했으며, 다음은 인터뷰의 주요 내용을 발췌 정리한 것입니다. (인터뷰 정리, 자원개발부)

※ 본 인터뷰는 KBS 홈페이지 (<http://www.kbs.co.kr>) ‘박태남의 집중인터뷰’ 코너와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홈페이지 (<http://www.obos.or.kr>) ‘한마음나눔의현장’ 국제협력 코너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Special Story 01



MC 박태남 (이하 'MC'로 표기) = 대지진으로 폐허가 되어버린 아이티 사람들을 기억하십니까? 엄청난 재해 앞에서도 희망과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아이티 사람들을 위해서 한차례의 긴급구호로 끝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들의 재건과 회복을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집중인터뷰가 주목한 사람은 아이티 장기재건사업을 위해 최근 아이티를 다녀온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본부장 김용태 신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부님을 통해 아이티의 현지 상황과 재건을 위한 몸부림, 구체적인 지원 방향과 계획 등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부님. 아이티는 비행시간만도 하루가 꼬박 걸리는 곳이라는데 다녀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지요?

본부장 김용태 신부 (이하 '김 본부장'으로 표기) =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8일부터 17일까지 9박 10일의 일정으로 다녀왔는데 아이티의 최근 상황을 살펴보고 중장기재건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어서 힘든 줄 모르고 다녀왔습니다.

MC = 지진이 일어난 지 꽤 됐지요?

김 본부장 = 예, 지난 1월 12일 오후 5시 경에 지진이 발생했고 진도 7.0의 대지진이었죠. 30만 명 이상이 죽고, 25만 채의 집과 건물들이 무너졌고... 8개월이 지난 지금도 복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아서 그때의 참상이 어땠을지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MC = 이번 방문은 현지의 상황도 알아보시고 또 재건사업을 위해서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김 본부장 = 네, 그렇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직후에 세계 각국의 NGO들이 우선 긴급구호 활동을 펼쳤습니다. 일단 당장 머물 수 있는 천막을 제공하고 물과 식수, 식량을 지원하는 긴급구호활동이 4월까지 펼쳐졌고, 집을 짓고 삶의 터전을 세우는 등 근본적인 재건을 위한 '중장기재

건사업'이 5월부터 시작 되었죠. 저희 본부도 현재 아이티에서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살펴보고 논의하기 위해 1차에 이어 이번 2차 방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장조사를 다니면서 지진이 일어난 지 벌써 8개월이나 지났는데도 사실상 지진 당시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대통령궁도 무너진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대성당에 민간가옥까지 거의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고 지속적인 지원에 대한 절실함을 느꼈습니다. 25만 채나 되는 가옥들이 무너지면서 오갈 데 없는 이재민들이 공터에 천막을 치고 살고 있는데 현대 100여 개의 천막촌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텐트촌에 평균 300개의 텐트가 있다고 하니까 계산해 보면 12만 명 이상이 길에서 천막을 치고 살고 있는 셈이지요.

MC =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 사업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인가요? 아이티의 현지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 본부장 = 사실 이 정도의 피해를 복구하려면 포클레인과 같은 중장비가 들어와서 무너진 집들을 거둬내고 평탄작업을 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직접 삽과 곡괭이를 들고 나와 일일이 사람 손으로 복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팔만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들고 나와 팔다보니까 시장은 북적이지만 실질적인 재건이나 복구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요. 특히 난민텐트촌이 아주 열악한 상황이었는데요. 상하수도 시설이 없어 위생시설은 엉망이고,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비가 쏟아져서 너무 습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언제 이 텐트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길이 전혀 안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웠습니다.

MC = 처음에는 많은 선진국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현재는 지원이 중단된 것인가요?

김 본부장 = 초창기에는 난민촌에 식량이 지금 되었지만 지금은 식량지급을 줄이고 대신 일자리를 준다고 합니다. 피해현장에서 돌맹이를 줌은다든지 하는 복구작업을 하는 일인데, 하루 일당은 5달러로 그나마도 운이 좋아야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냥 가지고 있는 가재도구를 내다 파는 정도죠.

MC = 이야기를 듣다보니 재건사업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겠지요, 재건사업을 위해서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차원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김 본부장 = 처음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학교재건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땅이 제일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데 땅 주인이 땅을 내놓지 않는다는지 정부에서 쉽게 땅을 허락 해주지 않아서 주택개량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쉽질 않습니다. 우선은 학교 재건사업에 역량을 쏟을 계획입니다. 지진으로 아이티 전체 학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3,900여 개의 학교가 파괴되었습니다. 미래의 희망인 아이티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학교 재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KBS1라디오 '집중인터뷰' 방송현장(2010.9.9)에서 본부장 김용태 신부

MC = 지원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십니까?

김 본부장 = 이재민들을 인터뷰 하면서 뭐가 제일 필요 한지 물으면 일자리를 달라, 먹을 것을 달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티 국가와 NGO 단체들이 모두 힘을 합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쓰나미 지진이나, 파키스탄 지진, 미얀마 대홍수 때를 보면 매년 환경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처음에는 언론도 사람들도 많은 관심을 주고 해서 뭔가 이뤄낼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 장기재건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사실 행정도 뒤따라주지 않고, 관심도 멀어져서 힘든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겠지요. 지금까지는 음식이나 텐트를 제공하는 긴급구호 쪽으로 활동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개발 프로젝트, 개발 시스템을 지원하고 가르치고 하는 근본적인 재건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MC = 다시 아이티를 방문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김 본부장 = 현지 아이티 카리타스와 함께 재건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대로 학교가 잘 지어졌는지 관계자들이 가서 직접 보고, 우리가 송금해준 지원비가 올바르게 잘 쓰이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MC = 구호활동이라는 게 재정문제가 항상 뒤따르지 않습니까?

김 본부장 = 100% 시민들의 후원금과 신자들의 헌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아이티는 지진 이전에도 진흙구키의 빈국으로 알려져 있어서 많은 국민들의 후원과 큰 나눔참여가 있었습니다. 본부는 여러분의 사랑에 큰 책임감을 느끼고, 이 사랑이 아이티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

아이티 지진참사 돕기 계좌 안내

- 후원 우리은행 454-005324-13-045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 문의 자원개발부 02-727-2267



“아이티의 희망은 진행 중입니다!”

이들의 희망을 희망으로만 그치게 하지 않고 구체적 현실로 보여
주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글 ● 국제협력부 차장 김대민

지난 9월 8일부터 17일까지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이티를 두번째 방문하였습니다. 4개월이 지난 지금은 얼마만큼 복구 되었을까? 사람들의 표정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하지만 저의 예상과 달리 아이티는 여전히 절망 속에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어수선했던 공항을 나와 차를 타고 아이티 카리타스로 이동하며 본 거리는 4개월 전 아이티 첫 방문때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보았던 무너진 건물의 잔해는 흉물스런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지진 후 8개월 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지냈을 생각을 하니 가슴 저 밑바닥에서부터 미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피해를 입은 아이티 국민들의 고통은 언제쯤 끝날

1. 아이티 지진 이후 여전히 복구되지 않은 주교좌성당 모습
2. 캠프촌 주민들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



3. 지진으로 무너진 후 여전히 복구가 되지 않은 대통령궁
4. 포르토프랭스 시내 캠프촌
5. 임시 천막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수 있을까? 아니 과연 지진 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수 많은 의문점들이 내내 머리 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행이 첫번째로 방문한 곳은 델마 거리에 있는 한 캠프촌이었습니다. 이곳의 모습은 열악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천막이 모자라 양철과 나무를 이리저리 이어서 지은 집, 그 안에서 우두커니 일행을 바라보는 아이티 사람들의 눈이 아직도 기억에 선합니다. 이곳에서 만난 한 젊은이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일자리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수도 포르토프랭스에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아이티 청년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다른 연령층의 현실 역시 어둡기만 합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 여성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진 직후에는 세계의 각 정부 및 민간단체로부터 구호식량과 구호품이 아이티 주민들에게 지급되었지만 긴급상황이 지난 5월부터는 이마저도 지급되지 않아 이들의 아픔은 더욱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참한 현실 속에서도 임시 천막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하루 5달러를 받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에 참여하여 무너진 건물의 잔해를 치우고 있는 많은 사람들, 길거리에서 물건을 사고 파느라 분주한 많은 사람들, 이렇게 열심히 무언가 하려고 하는 아이티 국민들을 보았을 때 아이티에도 분명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의 희망을 희망으로만 그치게 하지 않고 구체적 현실로 보여 주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아이티 국민들은 하루빨리 안정된 주거환경을 확보해야 하며, 학교를 잃은 많은 학생은 다시 빨리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학교 재건 사업을 우선 순위의 장기재건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아이티 주민들이 하루 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본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있기에 아이티의 희망은 진행 중입니다. ⊕

아이티 지진참사 돕기 계좌 안내

- 후원 우리은행 454-005324-13-045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운동본부
- 문의 자원개발부 02-727-2267



현장속으로 _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 <단비> 특집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몽골편'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단 하나의 비밀, 단비 따뜻한 사랑의 비, 단비가 몽골에 내렸습니다

글 • 자원개발부 류정희

아시아 최빈국 몽골의 도시빈민 어린이와 사막지역 유목민을 위해 "싹뿔줄 터질 때까지 돕겠다!"라고 외치며 한마음한몸운동본부와 함께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 "단비" (출연 : 장혁, 김수로, 김사랑, 장희진, 김용만, 정형돈, 김현철, 안영미, 마르코, 조동혁)팀이 긴 초원을 지나고 드넓은 사막을 넘어 봉사 대장정을 떠났습니다.

수많은 가축을 잃은 몽골의 유목민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

저는 몽골 울란바타르 시에 사는 대학생 머기입니다.
작년 겨울 추위로 저희 우리나라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꿈과 희망을 잃고 힘들게 살고 있는 제 고
향 엘승타사르해의 친구와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셨으
면 합니다.

(몽골 대학생 머기가
MBC <단비>제작팀에게 보낸 편지 중)

몽골의 수도 울란바타르 서쪽 방향으로 비포장도로를 차
로 6시간을 달리고, 낙타를 타고 1시간여를 걸어 머기의

고향인 '엘승타사르해'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를 제일 먼
저 맞는 것은 엘승타사르해의 40km 이상이 이어져 있
는 모래 띠와 습기 찬 초원 및 들뜬에 만발한 야생화들,
끝이 없는 에텔바이스의 군락지 등을 볼 수 있어 "몽골
의 자연백화점"이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운 엘승타사르
해의 경관... 뒤로 숨겨져 있는 바로 "초대형 가축매립장"
이었습니다.

매립장에서는 지난 한파에 동사한 가축을 모아 깊게 땅
을 파서 소독약과 함께 묻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규모가 워낙 커서 미처 묻히지 못한 가축의
잔해와 뼈가 밖에까지 널려 있었고 그 위로 까맣게 들끓
는 파리들로 접근조차 힘들었습니다. 수십 미터 아래가

지 파져 있는 땅 속에 묻힌 가축이 무려 1만5천두로 이 지역 전체 가축수의 절반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강물처럼 펼쳐진 가축들의 시체를 보며 몽골인 들이 흘렸을 눈물이 느껴져 <단비팀>도 말문이 막히고, 매립장의 안타까운 전경을 찍는 카메라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축매립장은 가축의 무덤이 아니라 재앙 수준의 피해를 입고 절망에 빠진 **몽골 유목민들의 꿈과 희망의 무덤**이었습니다.

유일한 생계수단을 잃고 절망에 빠진 유목민들에게 희망의 단비를 내리기 위해 우선 본부와 방송팀은 이 지역 대표인 투므르 도르즈 솜장(*솜장은 우리나라의 군수와 같음)님을 만나 한파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민 중에서도 시골지역이라 국가의 위기지원조차 받을 수 없었던 지역 내 최빈곤층 10가구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방송팀과 함께 현지에서 직접 200두의 가축을 구매해 각 가구당 20두의 양과 염소 등의 가축을 지원, 유목민들에게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수입창출을 통해 빈곤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지역대표인 상사르 솜장님의 협조를 얻어 가축의 개체수 증가 및 수입증가 현황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일차적인 생계를 꾸리는 것도 어려워 책 한 권 마음대로 볼 수도 없는 현실

몽골은 사회주의의 영향으로 초등교육 이수율이 98%이지만 실질적인 양·질적인 교육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족이 한 공간에 모여 사는 몽골 전통 가옥 '게르'의 특성상 집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전무하며, 도서 및 교육서적은 커녕 교과서도 없이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태반입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와 단비팀은 몽골의 어린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더 큰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될 도서관과 공부방 신축공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도시빈민촌인 바양호쇼 지역 공터에 일반 게르 5배 크기의 초대형 게르를 짓고, 게르 안에 동화이야기가 담긴 스펀지바닥 깔개를 깔고, 책장을 세워 1,000권이 넘는 책들로 채워넣었습니다. 시골지역 상사르 학교에는 학교 안의 방치되어 있던 자투리공간에 공부방 개보수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사장을 방불케 했던 방치공간을 말끔히 청소해서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는 카펫을 깔고 새 단장된 공부방에 책과 놀이, 학습도구들로 채워넣었습니다.

공사 중 돌발사고로 얼굴에 상처를 입고도 오히려 걱정하는 이들을 다독이며 더욱 열심히 일하던 장 혁씨, 얼굴이 반쪽이 될 정도로 거친 노동 속에서 특유의 인간미 넘치는 유머로 촬영 내내 활력소가 되어준 김수로씨, ... 온 몸과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신 단비팀 모든 출연자의 수고로 드디어 공부방과 도서관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바양호쇼 지역 400명 어린이들은 도서관에서 원하는 책을 마음껏 읽고 공부하고, 상사르 학교 기숙사생 150명과 인근 800여명의 지역아동 및 청소년들은 학습용 교재와 교육도구들을 마음껏 이용하며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화책에서 고등학교 교재까지 다양한 몽골 책과 한국어 교재들로 채워진 게르도서관에서 진지한 얼굴로 책을 읽고 있는 13살 오토곤돌람의 얼굴에서, 공부방에 설치된 다트 판을 신기한 듯 바라보더니 금세 다트게임에 빠져들던 8살 몽허의 얼굴에서 우리는 가난의 대물림을 멈출 수 있는 희망을 찾았습니다.

후원과 모금으로 동참해 주신 본부 후원자 여러분, 시청자 모든 분들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감사를 전합니다. 모두의 손을 거쳐 사랑의 프로젝트가 완성되었습니다. 도시부터 시골까지 몽골 곳곳을 행복하게 적신 단비, 여러분의 사랑이 있기에 가능한 단비였습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사랑이 이 세상 곳곳을 따뜻하게 적시는 사랑의 단비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

한마음한몸운동본부와 MBC <단비> 지원사업결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



가축지원

몽골 유목민의 자립역량 강화사업

국가의 위기지원이 닿지 않는 시골지역 최빈곤층 가구를 선정해, 가축을 지원하고 향후 가축 개체수 증가 및 수입증가 현황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예정임.

- 유목민을 위한 가축(양, 염소) 200두 구입
- 최빈곤층 10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각 20두 지원



공부방 · 도서관

도시빈민 아동 · 청소년 교육지원사업

학교에 방치되어 있던 자투리 공간과 도시빈민지역의 공터를 몽골 빈민 아동 ·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교육의 공간으로 만들.

- 도서관 (도시빈민 지역)
비양호소 지역 400명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르도서관 신축 및 도서 1,148권 지원
- 공부방 (시골 지역)
엘승타사르해 상사르 학교 내 방치되어 있던 교실을 기숙사생 150명과 인근 800여 명의 지역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 겸 휴게실로 개보수하고 학습용 교재와 교육도구 지원



게르지원

빈민 환경의 주거 개선사업

빈곤으로 인해 좁고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생활하던 극빈 유목민가정을 선정해 게르를 지어줌.

- 수혜 가정 소개
70대의 노부모, 1남 3녀(장녀와 차녀가 정신지체장애인이자 미혼모로 각 2.3명의 아들이 있음), 손자 5명, 총 11명이 게르 한 채에 살고 있음. 한파로 119두 가축 중 절반이 넘는 68두의 가축을 잃었으나 현장조사 결과 가축지원 보다 주거환경 개선이 더 시급한 상황으로 주거용 게르 1채 지원



문화체험

문화체험 및 마을축제

- 마을 축제
공사 마지막 날, 마을 주민 150명과 함께 하는 마을축제 개최 (씨름, 전통노래공연, 마두금 연주회 등)
- 식사 제공
비양호소 지역 내 1,000여 명의 어린이가 거주하고 있는데, 그 중 절반이 끼니를 챙기지 못하고 있음. 한국전통음식인 돼지갈비와 김치 곁들이를 준비해 비양호소 200여 명의 어린이에게 점심 제공

몽골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중점 지원사업국가로 본부는 지난 2006년부터 몽골 청소년들의 사회적 지도자 양성, 빈곤층 교육역량 강화, 청소년 교육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 증진사업등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소중한 꿈, 이 꿈은 이웃을 위한 우리의 작은 참여에서 시작합니다.

계좌안내 우리은행 454-005324-13-001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파키스탄 대홍수 긴급구호

금세기 최악의 홍수... 파키스탄에 구호의 손길을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수해 파키스탄에 3만 달러 지원

지난 7월 말, 파키스탄 북서부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로 1,600여 명이 생명을 잃었고, 2,000여만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해마다 홍수가 발생하는 곳이지만 이번 홍수는 80년만의 가장 큰 규모로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북서부 지역의 주로 도로, 다리, 사회기반시설 및 가구와 생계수단들이 무너지고 전기, 수도, 가스 공급이 마비되었습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파키스탄 이재민의 긴급구호를 위해 국제카리타스 및 파키스탄 현지 협력기관과 더불어 현재 피해상황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고, 이에 대한 1차 긴급 구호자금 3만 달러를 우선 지원했습니다.

지난 2005년, 8만 7천 여 명 이상이 사망한 파키스탄 대지진! 그런데 또 다시 홍수와 함께 폐허로 변해버린 땅에서 절망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세요!

2005년 파키스탄 대지진 참사 이후 많은 국제 비정부기구(NGO)들이 활동했지만 점차 감소하면서 현재까지 지진피해지역인 아자드 잠무 카슈미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파키스탄 국적 NGO는 한마음한몸운동본부가 유일합니다. 여러분의 나눔이 있어 대지진으로 희망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대홍수로 삶의 터전을 포기하지 않고 일궈온 그들의 희망이 무너지려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파키스탄 이재민들을 향한 기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2005년 파키스탄 대지진 지원현황 보고

2005년 10월	파키스탄, 100년만의 최대 규모로 기록된 대지진 참사 발생 8만 7천여 명 사망, 360만 명의 이재민 발생, 52억 달러의 재산 피해
2005년 10월	본부, 1차 긴급구호금 5만 달러 지원
2005년 11월	텐트, 방수/방한 덮개 각 200개, 매트리스 400개 지원, 7개 마을 배분
2006년~2007년	파키스탄 아자드 잠무 카슈미르 지진피해 지역 주택 225채 신축
2008년~현재	장기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아자드 잠무 카슈미르 지진피해 여성들의 경제적 자력화를 위한 직업기술훈련센터 15개 운영 중

파키스탄 홍수 긴급구호 특별모금계좌

- 후원 우리은행 1005-785-119119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 문의 02.774.3488

가톨릭교회의 Special Story 02 생명운동과 자살예방활동



글 ● 생명운동부 부장 윤경중

오늘날 우리는 가난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의 물질적 풍요와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그 대가로 인간성과 관계성 등 너무도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동안 우리 사회의 잘못된 가치가 그 얼마나 무수한 생명의 희생을 가져왔던가? 발전과 성공신화라는 미명 아래 얼마나 많은 공동체가 와해되고, 그렇게도 많은 생명들을 어두운 죽음의 궁지로 몰아 넣었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이 시대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톨릭 신앙은 세계 안에서 현전하거나 현존하는 생명체가 모두 우연의 소산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 자체이신 살아계신 인격적 하느님의 자유로운 창조행위를 통해서 무상의 선물로 생성되었다는 믿음에 입각하고 있어 가히 ‘생명신앙’이라고 불릴만합니다. 이처럼 가톨릭 신앙의 전거인 성경은 애당초부터 생명을 선사하는 하느님의 위업에 대한 증언입니다.”¹⁾

창세기2장 1절에서 하느님께서서는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숨을 불어 넣으심으로써 사람을 창조 하십니다. 숨은 생명을 상징하고 숨을 불어 넣어주시는 당신을 인간에게 내어주시는 의미한다 하겠습니까. 하느님의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는 행위가 바로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당신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예수님께서도 이와 똑같은 행위인 십자가상 죽으심과 성체성사로 인류를 구원하시고 끊임없이 생명을 주십니다.²⁾ 이렇게 볼 때 생명운동은 가톨릭 교회가 사활을 걸어야 하는 중차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가 사활을 걸 정도의 중대한 일이 ‘생명’을 수호하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 사회에는 생명보다는 죽음의 문화가 그들을 드리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간배아를 실험한다거나, 태아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낙태문제, 인권문제, 자살문제, 환경 파괴문제 등 다양한 생명문제가 그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톨릭교회가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오늘의 문제가 되는 세계관입니다. “오늘날 세계관은 ‘기계적, 과학적 세계관’인데 이는 자연현상을 이해함에 있어 운동하는 물질만을 다룹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수학적으로 측정 가능하고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양으로부터 모든 생명의 질이 제거된 차갑고 무감각한 세계관입니다.”³⁾ 이 세계관은 기계적 과학적 사고와 기술을 이용하여 이익을 남기고 그 이익의 풍요를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는 세계관

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 가톨릭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생명운동의 과제는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하고 있는 기존의 세계관을 대치할 ‘생명의 세계관’을 확립하는 일입니다.⁴⁾ 다시 말해서 과학과 기술을 통해서 이 세계를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아가 부를 축적하면 그것을 통해서 인류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세계관으로부터, 생명가치를 정점에 두고 서로의 생명이 소중하고 연관 지어져 있기에 서로가 협력하고 상생하며 사랑할 때 비로소 참다운 행복에 이를 수 있다는 ‘생명의 세계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운동의 과제는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하고 있는 기존의 세계관을 대치할 ‘생명의 세계관’을 확립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세계관으로의 전환만이 우리와 우리사회가 꿈꾸는 인권, 정의, 평화와 같은 이상적 가치들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거시적인 생명운동과 더불어 가톨릭 교회는 각 분야별로 생명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생명을 지켜내는 다양한 노력들을 경주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모든 활동들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기에 최근 시대적 징표인 자살문제를 미약하나마 해결하고자 한마음한몸운동본부가 시작한 자살예방사업을 분야별 사업의 사례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살예방상담을 위한 전화상담실(1599-3079)과 사이버상담실(<http://www.생명친구.org>)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은 지난 27년간 가톨릭교회 내에서 소외 받은 이들을 위해 상담봉사를 해 온 나눔의 전화 70여명의 봉사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자살위기에 있는 이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보수교육을 진행하였

1) 심상태, 「생명연구」 제2집 「물리적 환경과 생명에 대한 신학적 고찰」, 생명문화연구소, 1994년.

2) 윤경중, 「서울주보」 제1640호 「말씀의 이삭」, 2008년 8월 10일자.

3) 제레미 리프킨, 「엔트로피법칙」, 동아출판사, 1992년.

4) 윤경중, 「서울주보」 제1639호 「말씀의 이삭」, 2008년 8월 3일자.

으며, 지속적으로 슈퍼비전을 통해 전문 상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0~3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로 나타나고 있으며, 젊은 층의 인터넷 사용률이 높음을 고려할 때 사이버상담은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본 센터에서도 사이버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은 15명의 상담봉사자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상담 봉사자는 상담, 사회복지, 교육학 등의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관련분야에서 일한 경력이 있으며, 상담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봉사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살상담을 위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기본교육과 지속적인 슈퍼비전 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청소년들을 주 대상으로 '청소년생명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톨릭교회의 특성인 주일학교와 잘 짜여진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에게 생명존중의식을 고취시켜 생명의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며, 자살로 인한 어려움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교육하고 있으며 또한, 가톨릭재단이 운영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일반 중, 고교까지 확대하여 교육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향후 자살상담을 이끌어갈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전화상담 및 사이버상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매뉴얼 개발을 통해 본 센터에서 활동할 인력 양성에 머무르지 않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자살상담을 이끌어갈 인력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통해 배출된 인력들을 천주교 각 본당 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에 자살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 자살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전화상담 및 사

이버상담 교육과 함께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교육의 확대를 위하여 강사양성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강사 양성교육을 통해 자살에 대한 이해와 교육 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 또는 주일학교 등에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넷째,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하고, 내 주변의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의미의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자살예방과 관련된 정보책자 등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생명존중 문화의 확산은 교회 내를 중심으로 그 이웃으로 확대를 목표로, 올해는 명동을 중심으로 서울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향후 전국 본당을 중심으로 서명운동을 확대 전개해 나갈 예정이며, 자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캠페인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의 언급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생명운동의 거시적 활동과 분야별 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세계관을 확립하여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에 내면화시키는 활동들, 생명문제 분야별로 직접사업을 수행하는 이 두 차원의 활동이 종합적으로 기획되고 전개되어 질 때 오늘날 우리가 봉착한 생명위기의 현실에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새로운 아름다운 사회로의 진입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



나눔의 전화 27주년 맞아 자살예방 상담전화로 거듭나

글 ●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서지영

창립 27주년을 맞는 나눔의 전화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한마음한몸운동본부로 옮겨오면서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와 함께 자살예방상담 전화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전화상담이라는 자원봉사 활동분야가 불과 몇 개 있지 않았던 시절, 고통받고 소외된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눈다는 화해의 도구로서의 그리스도적 사명을 갖고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1983년 9월 5일 나눔의 전화를 개설하여 올해로 27주년을 맞았습니다. 상담원 전원이 자원봉사자인 나눔의 전화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롯이 하느님께 봉사하는 마음, 이웃사랑을 실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가고 자하는 마음으로 헌신한 상담가의 희생이 있었기에 27년이라는 시간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나눔의 전화는 올해부터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한마음한몸운동본부로 옮겨오면서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와 함께 자살예방상담전화로 거듭났습니다. 자살예방상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집중교육을 받고 있으며, 보다 많은 상담원들과 함께하기 위해 지난 7월 나눔의 전화 15기 신규상담원을 모집해 생명의 존엄성을 수호하며 생명나눔문화를 활성화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교육 수료 후 2011년부터 상담활동을 시작하는 나눔의 전화 15기 신규상담원들은 생명세상 실현을 위해 노력 할 것이며 이들을 통한 나눔의 전화의 발전과 도약을 기대해봅니다.

올해로 27주년을 맞는 나눔의 전화는 9월 29일 가



톨릭회관 2층에서 나눔의 전화 상담봉사자 5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창립기념미사와 행사를 가졌습니다. 기념행사 중에는 장기간 상담봉사에 헌신해 온 봉사자 시상을 통해 봉사자로서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들의 의지를 북돋아주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500시간, 1000시간, 1500시간, 2000시간 봉사한 9명의 봉사자와 25년간 나눔의 전화와 함께한 2명의 봉사자에게 감사장이 전달되었습니다. 특히, 25년 근속시상의 주인공 나눔의 전화 3기 이난희님, 이순자님은 오랜 시간 묵묵히 봉사자로서 나눔의 전화와 함께한 분들입니다. 이들은 수상의 기쁨과 함께 정년을 앞두고 있어 25년을 함께한 나눔의 전화 봉사자로서의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면서도 남은 시간 열심히 봉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



나눔의 전화 상담수기

사랑하며 잘사는 방법 터득해 갑니다

글 ● 나눔의 전화 상담봉사자 이영화

오늘도 몹시나 무더울 기세입니다. 장마는 끝난 것 같은데 태풍이 한 차례 큰 비를 몰고 올 것 같습니다. 그런 후에 선선한 가을 날씨로 돌아오려나.... 우리들의 생활이 항상 그렇듯 비온 후에 상쾌함과 맑은 하늘을 보면 언제 그랬었나 싶게 안 좋았던 기억은 잊어버립니다.

오늘도 오후의 상담을 위해 집을 나서며 목주알을 굴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제게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그들이 마음에 평화를 얻고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며 집을 나선지 어언 7년이 되었습니다.

27년 되신 선배님을 보면 존경스럽고 대단하심을 느낍니다.

지금의 나를 되돌아보며 자문해 봅니다. 그 동안 많은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정녕 주님 사랑의 마음을 전하도록 얼마큼 노력을 했을까? 혹시 내 마음만을 전한 것은 아닐까? 그들의 아픔을 얼마나 함께 아파하며 따뜻하게 보듬어 주었을까?

너무 감사하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아님 전화한 것이 도움이 안됐다고 하는 내담자들의 상담 마지막 멘트를 듣고 전화를 끊으면 마음도 아프고 여운도 남고 또 한편으로는

보람도 느끼며 나에게 대견한 마음도 들고 많은 생각이 교차합니다.

그런데 해가 거듭 될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지만, 내담자분들께 감사한 마음도 듭니다. 상담 중에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며, 사랑하며 잘 사는 방법을 터득해 나가는 내 자신을 보면서...

돌이켜 보면, 가끔 한 번씩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하고 있는 것인지, 계속해야 하는 것인지 깊은 갈등에 빠질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좋은 일한다고 기뻐하며 격려해주고, 불편한 일이 많은데도 참아주고 도와주는 고마운 남편을 떠올리며 고맙다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보람과 긍지를 갖고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해봅니다. ☺





천주교·불교·의료인단체 ‘한국 장기기증네트워크’ 출범

장기기증, 범국민운동으로의 확산 기대

고(故) 김수환 추기경 선종을 계기로 급격히 증가한 장기기증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천주교 서울대교구 한마음한몸운동본부(본부장 김용태 신부), 불교계 장기기증 운동단체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스님), 대한이식학회 의료전문가들로 구성된 생명잇기(이사장 조원현) 등이 참여하는 ‘한국 장기기증 네트워크’가 지난 9월11일 서울 장충동 동국대학교 만해광장에서 창립 선포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고(故) 김수환 추기경 선종을 계기로 급격히 증가한 장기기증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천주교 서울대교구 한마음한몸운동본부(본부장 김용태 신부), 불교계 장기기증 운동단체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스님), 대한이식학회 의료전문가들로 구성된 생명잇기(이사장 조원현) 등이 참여하는 ‘한국 장기기증 네트워크’가 지난 9월11일 서울 장충동 동국대학교 만해광장에서 창립 선포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와 생명나눔실천본부는 국내 대표적 장기기증 운동단체로 상당한 역량을 축적하고 있고, 생명잇기는 이식분야 의료전문가를 주축으로 구성된 의학적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이들 세 단체의 역량을 결집, 사후 장기기증 활성화는 물론 보다 체

계적이고 효율적인 홍보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날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스님은 개회사에서 “한사람, 한사람이 희망한 장기기증은 다른 누군가에게 새 생명의 꿈과 희망을 선물하는 큰 나눔이 된다”며 “한국장기기증네트워크 창립에 힘입어 우리 사회에 장기기증 문화가 널리 퍼져 나가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사무국장 민경일 신부는 “생명을 아름답게 마감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라며 “3개 단체가 연대하면 장기기증 문화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원현 생명잇기 이사장도 인사말을 통해 “지금까지 산발적이고 각 단체 중심이었던 장기기증 운동의 장점을 더욱 개발하고 새로운 형태의 장기기증운동을 활성화할 방침”이라며 “국민들 사이에서 대가 없는 사랑 나눔의 불씨가 더욱 크게 피어날 때 말기질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의료문화 구축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1천여명의 참가자들은 창립 선포식을 마치고 ‘생명나눔과 함께하

1. 한국장기기증네트워크 창립 선포식에서 자신의 핸드프린팅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내빈들
2. 3. ‘생명나눔과 함께하는 희망걷기’ 출발 전 모습
4. 본부 사무국장 민경일 신부의 경과 보고



는 희망걷기’에 참여해 동국대-남산순환로 6km 구간을 걸으며 국민적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국내 대표적 장기기증 단체인 세 단체가 김수환 추기경 선종 이후 사회적 관심이 커진 장기기증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손을 잡고 각 단체의 역량을 결집시킴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내고 우리나라에 새로운 장기기증 문화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한국장기기증네트워크’는 앞으로 범국민 캠페인과 전문적인 홍보자료 개발 및 보급,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초·중·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장기기증 의식 교육, 올바른 사회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



국제협력

아이티 2차 현장방문



아이티 지진피해지역을 지원하고 있는 본부는 장기재건사업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9월8일~17일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본부장 김용태 신부와 본부 국제협력부 김대민 차장,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회장 정성환 신부 등 관계자들과 함께 아이티 2차 현장 방문을 실시 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하여 아이티 카리타스의 1단계 긴급구호 사업 점검과 함께 2단계로 진행중인 중장기 재건사업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돌아 왔으며, 이번 방문에는 평화방송이 동행 하여 지진발생 이후 아이티 피해복구 현황, 난민촌 상황, 현지 구호활동 등을 함께 취재하였습니다.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정성과 후원은 아이티 주민들이 절망에서 벗어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쓰여지고 있으며, 여러분의 마음이 헛되지 쓰이지 않고 귀하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4차 유네스코 아시아 청년 포럼 참가

국제협력부는 9/6~9/11까지 광주에서 열린 '제 4회 유네스코 아시아 청년 포럼'에 참가하였습니다. '아시아 공동체를 위한 청년의 창의성과 비전'이라는 주제로 아시아 지역 22개국에서 온 44명의 참가자들이 함께 모여 지역사회를 위해 토론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본부는 작년부터 포럼의 일부인 아시아청년기금을 지원하여 청년들이 제출한 아시아 지역사회 내 프로젝트를 실현하고 아시아 청년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현장방문



8월21~29일까지 캄보디아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은 2010년 KOICA 민간단체 지원사업인 반티프리업센터를 방문하여 전반기 사업을 평가하였으며, 2011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국제개발협력기금 지원사업인 카리타스 캄보디아의 토착주민들의 공동체 개발 사업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파키스탄 현장방문



8월 4~13일까지 파키스탄 현장방문을 실시했습니다. 파이살라바드 통합적 지역사회발전 프로그램과 카슈미르 지진피해 이후 지역사회재건 사업의 일환인 직업기술과 농업훈련을 통한 여성경제자력화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현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참여자들과 함께 발전적인 논의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생명운동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센터장
이·취임식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센터장 이취임식이 지난 10월 11일 명동 가톨릭회관 2층 센터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제 1대 센터장 민경일 신부(한마음한몸운동본부 사무국장)에 이어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제 2대 센터장에 임명된 배현순 수녀는 "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청소년들이 스스로가 자신의 소중함을 발견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놓지 않도록 교육과 캠페인, 나눔의 문화, 사이버상담실 등을 통해 위기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취임사를 통해 다짐했습니다.

본부 직원과 센터 관련 내빈들이 참석해 전임 센터장 민경일 신부(한마음한몸운동본부 사무국장)에게 감사를 전하고 새 센터장으로 취임한 배현순 수녀에게 축하를 전했습니다.

**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 사이버상담실
개설(<http://www.생명친구.org>)**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는 온라인상에서 자살문제로 고민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지난 9월9일 사이버상담실(<http://www.생명친구.org>)을 개설하였습니다. 이날 서울 명동가톨릭회관 426-1호에서 개최된 사이버상담실 개설 축하식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조창희 중무실장이 외빈으로 참석하였으며, 센터 자문위원 및 상담위원에 대한 위촉식이 함께 있었습니다.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사이버상담실에는 24시간 상담봉사자 15명이 대기하면서, 자살충동 또는 우울증을 느끼는 위기 청소년들의 고민을 듣고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누리 방에서 상담 게시판이나 'e-mail 상담' 메뉴로 들어가 고민 내용을 남기면 전문 상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센터는 이를 위해 상담·심리·복지·간호 관련 분야 학위 취득자 또는 실무 경력자를 모집, 사이버 상담 전문 봉사자로 양성했습니다. 아울러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는 올 3월부터 자살예방 전화상담 콜센터(1599-3079)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눔의 전화 15기 전화상담과정
교육 실시**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와 나눔의 전화에서 실시한 15기 전화상담봉사자 기본 교육이 29일 10 회기를 끝으로 종강을 했습니다. 교육 수료생들은 9월 30일 면접을 치른 후 10월 6일부터 자살예방상담 심화과정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교육 수료생들의 자살예방 전화상담 전문가로서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2010 대한민국 나눔 문화대축제 참가

지난 9월 17~18일 양일간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열린 2010 대한민국 나눔 문화 대축제에 참가한 본부는 현장에서 장기기증희망자모집 및 나눔 부스를 설치하고, 본부 홍보 및 현장에 참여하신 분들과 나눔 축제를 함께 하였습니다

백혈병·난치병어린이 자원사업

※ 단위:만원

성명	병명	병원	진료비
김*(남, 3개월)	신생아호흡곤란증 외	서울성모병원	900
허*(남, 만6세)	형문근육증	국립암센터	900
김*(여, 5개월)	신우요관이행부형착	서울성모병원	500

장기이식대기자 지원사업

※ 단위:만원

성명	병명	병원	진료비
김*(남, 만2세)	전격성간염, 뇌사자간이식	서울대병원	1,000
양*(여, 만41세)	간경화, 뇌사자간이식	순천향대부천병원	1,000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사랑과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대전성모병원, 사랑의 헌혈증
1,000매 전달해 와**



지난 10월 8일, 본부는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병원장 박재만 신부) 8층 회의실에서 헌혈증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 날 전달된 헌혈증서는 대전성모병원과 지역 복지관 직원, 대전교구 본당 신자 등이 생명 존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 8여 년간 모아온 헌혈증서 1000장을 본부에 전달한 것입니다.

본부는 재생성 빈혈환우, 백혈병 환자 등 혈액이 절실한 이들을 돕기 위해 매년 평균 1000~1500 여장의 헌혈증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날 헌혈증서 1000장을 전한 대전성모병원 원목실장 백광현 신부는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구이념인 생명 존중 실천은 또 다른 생명을 살리고 탄생시키는 등 진정한 일치의 결실을 맺게 한다"며 "송고한 사랑과 생명을 담고 있는 헌혈증서가 한 곳에 묶여 있지 않고 간절히 필요한 이들에게 적절히 배분돼 또 다른 사랑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본부 사무국장 민경일 신부는 "선행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사랑을 실천하는 이들이 있어 이 사회는 더 아름답고 따뜻한 것 같다"며 "이번 전달식을 계기로 사랑을 나누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더 많은 이들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날 전달받은 헌혈증서 1000장은 재생성 빈혈환우, 백혈병 환자에게 지원됩니다.

개포동성당, 헌혈증 전달해 와

서울 개포동성당(주임 정구현 신부) 설립 25주년을 맞아 지난 8월29일 생명나눔기념행사를 펼쳐 모은 헌혈증 65매를 본부에 전해 주셨습니다. '한마음'이라는 글자 그대로 본당 신자들의 일치와 화합을 위해 마련한 25주년 잔치인 '한마음축제'를 축제와 함께 생명나눔의 장으로 마련하고 모든 신자분들께서 동참해 모아주신 마음을 도움이 필요로 하는 환우분들에게 잘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고로 과다출혈을 한 환자, 수술을 받기 위해서 수혈이 필요한 환자, 혈액을 만들어내는 조혈모세포의 이상으로 계속 수혈에 의해 생명을 이어가는 환자 등 각종 질병의 환자들 이 혈액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본부는 지난 1989년부터 헌혈운동과 헌혈증 기증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눔이 꺼져가는 한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마음을 모아주신 개포동성당 주임신부님과 모든 신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헌혈증 기증 및 헌혈관련 문의 02-727-2268)

'인간의 대지' 의약품 후원



9/30일 이웃돕기 후원단체인 '인간의 대지'에서 알레르기성 비염, 피부염 치료제 540통을 본부에 기부해 주셨습니다. 이 치료제는 본부 네팔 지원사업장인 '성바오로이동진료소'에 전달되어 네팔의 여러 환자들에게 유용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인간의 대지'에서는 지난 2월23일에도 약 2억 4천만 원 상당의 의약품 및 원단(의류 물품)을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와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후원한 바 있습니다. 의약품은 복지회 산하 무료병원에 지원하였으며, 원단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를 통해 몽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지속적인 나눔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시는 '인간의 대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의약품이 전달된 본부 네팔 지원사업장 '성바오로 이동진료소'에서는 네팔 카스키 지역 내 포카라 및 인근지역 빈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진료소는 지역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체계측, 혈액색소, B형 간염 및 흉부촬영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질병을 조기진단하여 전염성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방문진료를 시작(2009.7)하여 슬럼가의 여성질환과 어린이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생애 첫 기부

생일을 맞은 아기들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이어가는 사랑실천에 감사드리며 소중한 마음이 아름답게 꽃필 수 있도록 본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재훈 마티아	(2009.5. 20생 父백형민/母안수진),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지원)
권지안 보나	(2009. 6. 10생 父권진호/母백미애), 8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지원) 막내 동생의 돌을 기념하여 첫 기부를 하는 삼남매
송지우 젤뚜르다	(2009. 3. 17생 父송남근/母박현애), 745,150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지원)
김태연 소화데레사	(2009. 6. 1생 父김홍식/母이혜경), 4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지원)
허정우 다니엘	(2007. 7. 2생 父허병구/母박수정),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지원)
김수민 그라시아	(2009.5.12생 父김현우/母임로사),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안지호	(2009.7.27생 父안영균/母김민정),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김지혁 이사야	(2008.7.6생 父김태진/母이원희), 2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김동하 다니엘	(2008.8.4생 父김중영/母조익희),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조호연 베르나르도	(2007.8.20생 父조남현/母김자영),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장예연 마리아디로사	(2008.12.15생 父장훈태/母정소희),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생명, 포기하지 말고 지켜주세요

1599-

3079

생명친구

www.생명친구.org
www.obos3079.org

- 자살예방센터 1599-3079(생명친구) • 상담시간 (월~토) 10시~21시30분
-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380-307979 /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한마음한몸 자살예방센터



22nd ANNIVERSARY

* 한마음한몸운동본부가 걸어온 지난 22년은 세상의 소외된 사람들을 마주 보며 사랑나눔을 실천해 온 22년이었습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22살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립하신 성체성사의 정신에 따라
나눔을 실천하고 생명을 살리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故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설립하신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국제협력, 생명나눔, 국내사회복지 지원사업을 전개하며
생명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절취선을 따라 오려주세요

접는선
이 부분은 반으로 접으세요

보내는 사람

□ □ □ - □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0.3.9 ~ 2012.3.8

서울중앙우체국
승인4151호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서울시 중구 명동길 62 (구.명동2가 1) 가톨릭회관 413호
tel 02.774.3488 fax 02.776.7879 www.obos.or.kr

1 0 0 - 8 0 9



아름다운 유산 장기기증, 제가 하겠습니다



붙일하는 곳

'장기기증 희망' 등록 신청서

KONOS

등록번호

나는 이곳에게 새 생명을 주려고 아무런 대가 없이 나의 장기를 기증하고자 합니다.

이름(세례명) |

본당 |

주민등록번호 |

이메일 |

주소 |

장기기증 등록증 발송을 위해 주소를 정확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핸드폰 |

기증장기 | ☐ 뇌사시 장기기증

☐ 사후 각막기증

☐ 조직기증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의사표시를 원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장기기증이익제한법 제13조 3항에 따라 본인은 장기기증의 취지와 절차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장기기증 희망자로 한마음헌물운동본부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름

반드시 자필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명)

법정대리인 동의서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를 함께 보내주셔야 합니다.)

법정 대리인 이름 반드시 자필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하루 100원 모으기' 자동이체 출금동의서

□ □ □ □ □ □ □ □ - □ □

이름(세례명) |

본당 |

주민등록번호 |

이메일 |

주소 |

전화번호 |

핸드폰 |

후원금액 |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기타 (

)원

출금금액 | ☐ 매월 5일

☐ 매월 20일

*출금통장에 '한마음헌물'이라 표시되며, 해당 약정일에 자동 출금됩니다.
연말 소득증 납입명수증 발급됩니다.

출금은행 |

예금주 |

계좌번호 |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

20

년

월

일

이름

반드시 자필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명)

본인은 자동 계좌이체약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자동이체를 신청한 때로부터 해지 신청을 할 때까지 금융거래정보 거래은행명, 지정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를 상기 거래은행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명의인 및 통지여부와 관계없이 약관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하며 위와 같이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